

# HYUNDAI E&C TODAY

Vol.341  
우리는  
현대건설  
이다

<http://news.hdec.kr>

2017 / 09 / 13 / Wednesday

발행인 정수현 / 편집인 한성호 / 발행처 현대건설 홍보실 / 주소 서울시 중로구 을곡로 75 현대빌딩 / 대표전화 1577-7755 / 신고번호 중로 라00049

〈사보신문〉에서는 테마로 대표 프로젝트를 살펴보는 “우리는 현대건설이다”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현대건설의 이름으로 완성애운 자랑스러운 역할을 통해 도전 DNA를 일깨우고 강인한 추진력으로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울산II복합화력발전소 2014



소양강댐 1973



신고리원자력발전소 1,2호기 2012



카타르 라스라만C 복합화력발전소 2011



베트남 동명1 석탄화력발전소 2015

## Hyundai E&C builds light and power around the world

Electricity was most urgently needed in South Korea after the Korean War. Not only the war destroyed power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facilities, but also most of power generation facilities were concentrated in North Korea at that time. After Hyundai E&C took the first step in the construction of power plants in 1954 by building Masan thermal power plant (1956), Korea's primary builder distinguished itself in the area of power generation with the construction of Yeongwol thermal power plant II (1965) based on its own technology. As for nuclear power plants, the builder conducted the biggest number of about 20

nuclear power plant projects in the country varying from the country's first nuclear power plant Kori nuclear power plant unit 1 (1978) to Shin Kori 4 to be completed next year. It was the challenge and perseverance of Hyundai E&C that could increase power supply from almost zero after the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to the current level.

Currently, the company is putting its efforts to develop coal-free, green energy as the next-generation technology and to contribute to energy independence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빛과 동력動力이 되다

전후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전기였다. 송배전 시설이 파괴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발전설비가 북한에 집중돼 있던 탓이다. 현대건설은 1954년 마산화력발전소(1956)로 발전소 시공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영월 제2화력발전소(1965)를 자체 기술력으로 준공하며 발전 분야에 두각을 나타냈다. 인천화력 1~4호기(1978), 평택화력 1~4호기(1983), 태안화력 1~6호기(2002), 영흥화력 1~4호기(2009) 등 주요 발전소가 모두 현대건설 작품이다. 또한 국내 최초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1978)를 시작으로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신고리 4호기까지 20여 기에 이르는 국내 최대 원전 시공 실적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소양강다목적댐(1973) 등 거대 토목공사를 수반한 수력발전부터, 석탄 연료를 사용한 화력발전, 제3의 불이라 불리는 원자력까지, 해방 후 제로베이스에 가까웠던 전력 공급을 지금의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은 기술 불모지에서 도전과 혁신으로 승부했던

현대건설의 지력이었다. 현재 현대건설은 차세대 기술 개발로 탈석탄, 그린 에너지 확산에도 힘을 쏟고 있다. 무연탄을 연료로 베트남 최초 순환유동층보일러(CFBC)를 적용한 동명1 석탄화력발전소(2015), 초임계압 순환유동층 보일러가 적용된 삼척그린과 위발전소(2017), LNG를 활용한 울산II복합화력발전소(2014), 천연가스를 이용해 전기와 담수를 생산하는 담수 복합발전,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열발전소인 인도네시아 사롤라 지열발전소(2018 예정) 등은 효율성과 환경을 고려한 부단한 노력의 결과였다.

현대건설은 카타르 전체 전력설비의 30%를 담당하는 라스라만C 복합화력발전소(2011), UAE 정부의 4만MW 전력 확충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인 바라카 원전(2018 예정), 우즈베키스탄 전체 전력의 6.6%를 생산하는 탈리마잔 복합화력발전소(2017) 등을 시공하며 각국의 에너지 자립에도 일조하고 있다.



## ‘Principle’ is a key to compliance, safety and win-win business relationships

A conference for compliance, safety and win-win management held on Sept. 12

Our company held a special conference on September 12 in the headquarters, Seoul. In the meeting attended by about 600 executive members including CEO Jung Soo-hyun and managers or higher level of management as well as top managements of our partner companies, the participants pledged to comply with construction-related laws, pursue safe practices and perform win-win management. The meeting proceeded as follows: 1) pledging allegiance to the nation, 2) watching a video clip about related government policies 3) awarding a letter of appointment, 4) reading a written resolution, 5) presenting an award certificate and 6) delivering CEO's speech. By signing the written resolution, the participants were deter-



mined to create a fairer and clearer corporate culture.

Notably, in an effort to refurbish the existing “safety inspection team” whose members were executives working in the head office, the new “win-win safe-

ty inspection team” was established to include officials from our partner companies, and new members were appointed during the meeting. The new safety team is planning to visit construction sites to check how well safety-related

works and guidelines are performed.

CEO Jung asked for the participants to make all-out efforts to establish a powerful system to increase orders and enhance competitiveness in project execution in order to achieve our business objectives.

## 준법, 안전, 상생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원칙’

9월 12일, 준법/안전/상생 경영 실천 결의대회

“셋길로 가는 것이 당장은 빠르고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과적으로 득이 되는 것은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준법과 안전, 상생’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 역시 ‘원칙’입니다. 바른 길, 원칙대로 가야 안전하게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9월 12일 계동 본사 대강당에서 정수현 사장을 비롯한 팀장급 이상 임직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법/안전/상생 경영 실천 결의대



임직원 및 협력사 대표가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회’를 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명근 두송건설 대표, 김영석 구산토건 대표, 이규형 관악산업 대표 등 협력사 관계자도

함께했다. 행사는 ▶국민의례 ▶정부정책 소개 영상 관람 ▶위원장 수여 ▶결의문 낭독 ▶표창장 수여 ▶사장님 말씀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준법/안전/상생 경영 실천 결의문’에 서약하고, 법에 기반한 ‘안전한 일터’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조성’을 다짐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본사 임원들로 구성된 기존의 ‘본사 임원 안전 점검단’을 협력사 관계자까지 확대해 새롭게 ‘상생안전 점검단’을 위촉했다. 향후 ‘상

생안전 점검단’은 수시로 현장의 안전 작업 현황·지침 준수 상태 등의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리 회사 정수현 사장은 “오늘 결의대회를 계기로 현대건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법과 원칙을 지키며 협력사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처리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 사장은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수주 총력체계 확립 ▶수행 경쟁력 제고를 위해 힘써줄 것도 당부했다.

### 그림사 소식

#### 현대자동차그룹-테크니온-KAIST 미래 혁신기술 공동연구

현대자동차그룹 이 이스라엘의 최고 명문대학 중 하나인 테크니온(TECHNION)공과대학-한국의 카이스트(KAIST)와 손잡고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 혁신을 선도할 차세대 신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9월 5일 이스라엘 테크니온대에서 현대자동차그룹 미래혁신기술센터장 임태원 전무를 비롯해 테크니온 페렛 라비(Peretz Lavie) 총장과 다니엘 바이스(Daniel Weiss) 명예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모빌리티 연구를 위한 HTK(Hyundai Motor Company-TECHNION-KAIST) 글로벌 컨소시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HTK 컨소시엄’은 미래 혁신 기술의 산실인 테크니온대에 모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통합적 공동 연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현대엔지니어링, 외국인 직원들과 생태숲 조성 봉사

현대엔지니어링 외국인 직원들이 9월 1일 서울 상암동 하늘공원을 찾아 생태숲 조성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1000㎡ 규모의 생태숲 조성 부지 주변 병충해와 잡초를 제거하고 매화나무 50그루를 심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이 기증한 숲에 자연을 보호하고 어울리겠다는 임직원의 의지를 담아 ‘자연과 함께 어울림, 현대엔지니어링’이라는 명패를 달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향후 ‘현대엔지니어링 숲’에 총 1000그루의 나무를 추가로 심을 계획이다.

### 2017 대한민국 명품하우징 대상 ‘최우수상’

우리 회사의 ‘힐스테이트 송도 더테라스’가 머니투데이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주택도시보증공사가 후원하는 ‘2017 대한민국 명품하우징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힐스테이트 송도 더테라스’는 오피스텔임에도 모든 가구에 테라스 설계가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에 지하 4층~지상 49층 9개 동 전용면적 84㎡, 총 2784실 규모로 들어선다.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송도 6·8공구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시설과 호수공원, 각종 생활편의 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 인도 참발강 사장교 현장 준공식 개최

인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참발강 사장교가 우리 회사의 기술력으로 완성됐다.

지난 8월 29일 열린 준공식은 현지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현장이 위치한 라자스탄주(州) 코타(Kota)와 우다이푸르(Udaipur)에서 이원으로 진행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우리 회사 강용희 해외사업부장, 강행권 현장소장, 주인도 한국대사관의 최봉규 공사참사관과 현지의 Om birla 국회의원, Mahesh Bijay 코타 시장을 비롯해 시민 2만5000여 명이 함께했다.

인도 참발강 사장교 현장은 총 길



이 1.4km(700m 사장교, 400m 접속교, 300m 접속 도로), 주탑 높이 80m, 주경간 350m로, 인도 최대 규모다. PSC(Parallel Strand Cable) 타입의 케

이블을 사용해 안정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한편, 미국도로교통공무원협회(AASHTO)의 하중저항계수설계법(LRFD) 설계기준을 적용해 안정성도 확보했다. 중앙 부분의 주탑 2개가 비스듬히 뻗은 케이블이 상판과 연결돼 수려한 미관을 자랑한다.

현장 관계자는 “2006년 11월 공사에 착공한 이래 악전고투의 연속이었지만 많은 분의 도움으로 무사히 준공할 수 있었다”며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프라 시설로 최악의 교통난을 겪고 있었던 이 지역에 희망의 다리를 선물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 하반기 도시정비 사업 수주 이어져

우리 회사가 최근 공덕1구역, 일원대우, 방배5구역 재건축 등을 연이어 파내며 도시정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 회사가 9월 9일 방배5구역 재건축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946-8번지 일대에 아파트 2557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공사금액은 7396억원이다. 우리 회사는 프리미엄 주택 브랜드인



방배5구역 조감도.

‘디에이치(THE H)’를 적용해 각종 특화 설계를 도입한다. 외관과 문주 등에 차원이 다른 설계·디자인을 적용하는 한편,

호텔식 로비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최고층 스카이라운지, 단지 내 수영장 등 고급 커뮤니티시설과 조경, 마감제도 최고 수준으로 꾸미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8월에도 우리 회사는 공사금액 2724억원(당사분 1226억원)의 공덕1구역 재개발과 강남구 일원동 일대 지하 2~지상 22층(184가구)의 일원대우 재건축 사업을 연이어 수주했다.

### PHOTO NEWS

#### 현대건설 배구단 ‘대한민국 올해의 브랜드 대상’ 수상



현대건설 배구단이 9월 7일 한국소비자포럼 주최로 열린 ‘2017 대한민국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 프로스포츠 여자배구 부문 ‘올해의 프로배구단’에 선정됐다. 올해의 브랜드 대상은 올 한 해 경제·문화·사회·인물 등 각 분야에서 국민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최고의 브랜드에 시상한다. 수상 업체는 소비자 투표와 일대일 전화 설문 등을 통해 선정한다.

한편 현대건설 배구단은 ‘2017 천안-벤스컵 프로배구대회’를 앞두고 외국인 선수 엘리자베스를 영입하는 등 전열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Lighting up the night throughout the nation

Sept 09

Just as Seoul celebrates the fresh autumn weather with fireworks to brighten up the night, other cities across the country also offer unique festivals that paint the night sky in colorful lights.

The Busan International Fireworks Festival, first held in 2005, is the biggest of its kind in Asia, with over 1.4 billion won (\$1.24 million) spent on the fireworks alone - it's even said to be visible from Japan's Tsushima Island. This year's festival will be held on Oct. 28, at its usual venue on Gwangalli Beach. Since the ocean water prevents anything from catching fire, visitors can see the fireworks pouring down from the sky at a spectacular scale. Hotels near the beach offer special fireworks packages for the night, such as Commodore Hotel Busan and the Haeundae Centum Hotel. Tickets for the event are available on Interpark, an online ticket marketplace.

Another festival in Busan is the Yeongdo Bridge Festival which is held from Sept. 15 to 17, with fireworks displays planned for both night of the festival. The festival is the only Korean festival to be



Jinju Namgang Yudeung Festival 2016.



Busan International Fireworks Festival 2016.

held exclusively on a bridge, providing attendees a hands-on experience to learn about the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 the Korean Peninsula. Dynamic Duo, a Korean hip-hop duo famous for their song, "Fireworks," are scheduled to perform on the 16th to heighten the mood.

In nearby South Gyeongsang, two festivals offer a calmer atmosphere compared to the bombast of the Busan shows. The Gumi Nakdong River Fireworks Festival will be held on Sept. 23 for the second time. The Nam River will

be lit up with lights from the Jinju Namgang Yudeung (Lantern) Festival from Oct. 1 through 15. The Jinju lantern festival will feature a fireworks show on the day of its opening to celebrate the 18th opening of the festival. The Jinju festival is a memorial to General Kim Si-min of the Joseon Dynasty (1392-1910), who defeated the Japanese invaders by lighting lanterns to flow on the river and fooling the enemy.

The 63rd Baekje Cultural Festival, which is held in Gongju and Buyeo, both

in South Chungcheong, will be a week-long celebration of the 700 years of history during the Baekje period, 18 B.C. to A.D. 660. From Sept. 29 to Oct. 5, the two cities, which were the capitals of the ancient nation, feature a variety of programs providing a look at traditional Korean culture as well as modern interpretations of Baekje artifacts. Fireworks will be on the show of the first day in Gongju on Sept. 29 with a colorful finale at the Buyeo site on Oct. 5.

By KOREA JOONGANG DAILY

## Chuseok holiday will be 10 days for the lucky

Sept 06

The government on Sept. 05 designated Oct. 2 a so-called temporary holiday, making a long weekend for some before the Chuseok holiday, Korea's harvest festival. The cabinet approved the plan in a move that will create a 10-day Chuseok holiday from Sept. 30 through Oct. 10. Chuseok falls on Oct. 4 while a public holiday commemorating the Korean alphabet, Hangeul,

is set for Oct. 9.

Only public institutions including government agencies and schools will automatically get a holiday on Oct. 2. Private companies will decide on their own. "We made the decision as early as possible to allow the industrial community as well as the public to better manage their schedules," President Moon Jae-in said. The president stressed to his cabinet that such a long break should

boost domestic consumption and stimulate the economy. Retailers welcomed the decision and hope people will spend the extra days off shopping.

For the temporary holiday on May 6, the government waived highway tolls and entry fees at tourist sites. The government will waive highway tolls between Oct. 3 and Oct. 5 this year.

By KOREA JOONGANG DAILY



## Group News

### Kia signs new UEFA Europa League sponsorship deal

Kia Motors is named as a new Official Partner of the UEFA Europa League. The three-year sponsorship agreement commences in time for the 2018/19 season, and runs through to the UEFA Europa League final in 2021. The UEFA Europa League is the world's largest professional club football competition, involving clubs from 54 countries across Europe, and attracting a global TV audience of 980 million across all programming. As an Official Partner, Kia Motors will supply a fleet of 90 vehicles to UEFA (Union of Europe-



an Football Associations) for the UEFA Europa League finals in 2019, 2020 and 2021. The fleet will be used to transport referees, officials, delegates and VIPs. In addition, Kia Motors and UEFA will carry out the first UEFA Europa League 'Trophy Tour'.

### Kia Proceed Concept revealed ahead of Frankfurt world debut

Kia Motors has revealed new images of the Proceed Concept. Kia's new concept car made its world debut at the 2017 Frankfurt International Motor Show on 12 September on the Kia stand, located in Hall 9 of the Frankfurt Messe exhibition centre. Designed at Kia's European design centre in Frankfurt, just 500 metres from where it was unveiled, the Proceed Concept indicates what the next-generation cee'd could look like. The concept presents a new body type for Kia. The extended hot hatch retains the athleticism of the current



pro\_ceed model, while combining its striking visual presence with a dash of real-world versatility. Reworked and reimagined for a new generation of driver, it puts forward a bold vision for a potential member of the next-generation cee'd family.

## 10 minute Korean Lessons

Basic



Is it true?

그게 정말이에요?

Situational context

Michael heard the news from Yeong-min that some celebrity would come tomorrow to film a commercial for their company. He is surprised by this news, and wants to express it. At that point, he can say "그게 정말이에요?"

Today's dialogue

영민 마이클 씨! 내일 회사에 가수가 온대요.  
Michael ssi! naeil hoesa-e gasuga ondaeyo.  
마이클 (놀라며) 네? 그게 정말이에요?  
Yeong-min Micheal! I heard that a singer will come to our company tomorrow.  
Michael (Surprised) Yeah? Is it true?

One more expression

This expression can be used when you hear some unbelievable good or bad news and you want to check to make sure it is true. You can also use "정말이에요?" (really?) or "진짜예요?" (for real?)

Intermediate



I have a stomachache

배탈이 났어요

Situational context

Michael doesn't look good, so Yeong-min is concerned that he might be sick. Michael wants to express that he has a stomachache. At that point, he can say "배탈이 났어요."

Today's dialogue

영민 마이클 씨, 어디 아파요?  
Michael ssi, eodi apayo?  
마이클 점심 먹고 나서 갑자기 배탈이 났어요.  
jeomsim meokko naseo gapjagi baetari nasseoyo.  
Yeong-min Michael, are you sick?  
Michael after I had lunch, I suddenly got a stomachache.

One more expression

'탈' means disease or sickness of body, such as "몸에 탈이 났어요." (I have an illness) However, you can use it as worry or accident, such as "이번 행사는 별 탈 없이 잘 끝났어요." (This event was completed without any accident or proble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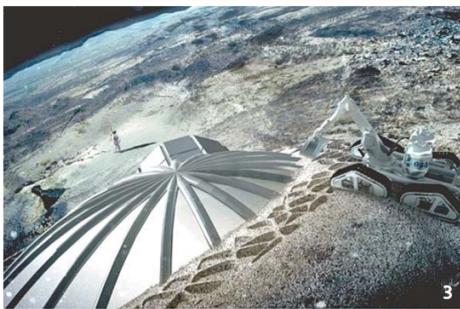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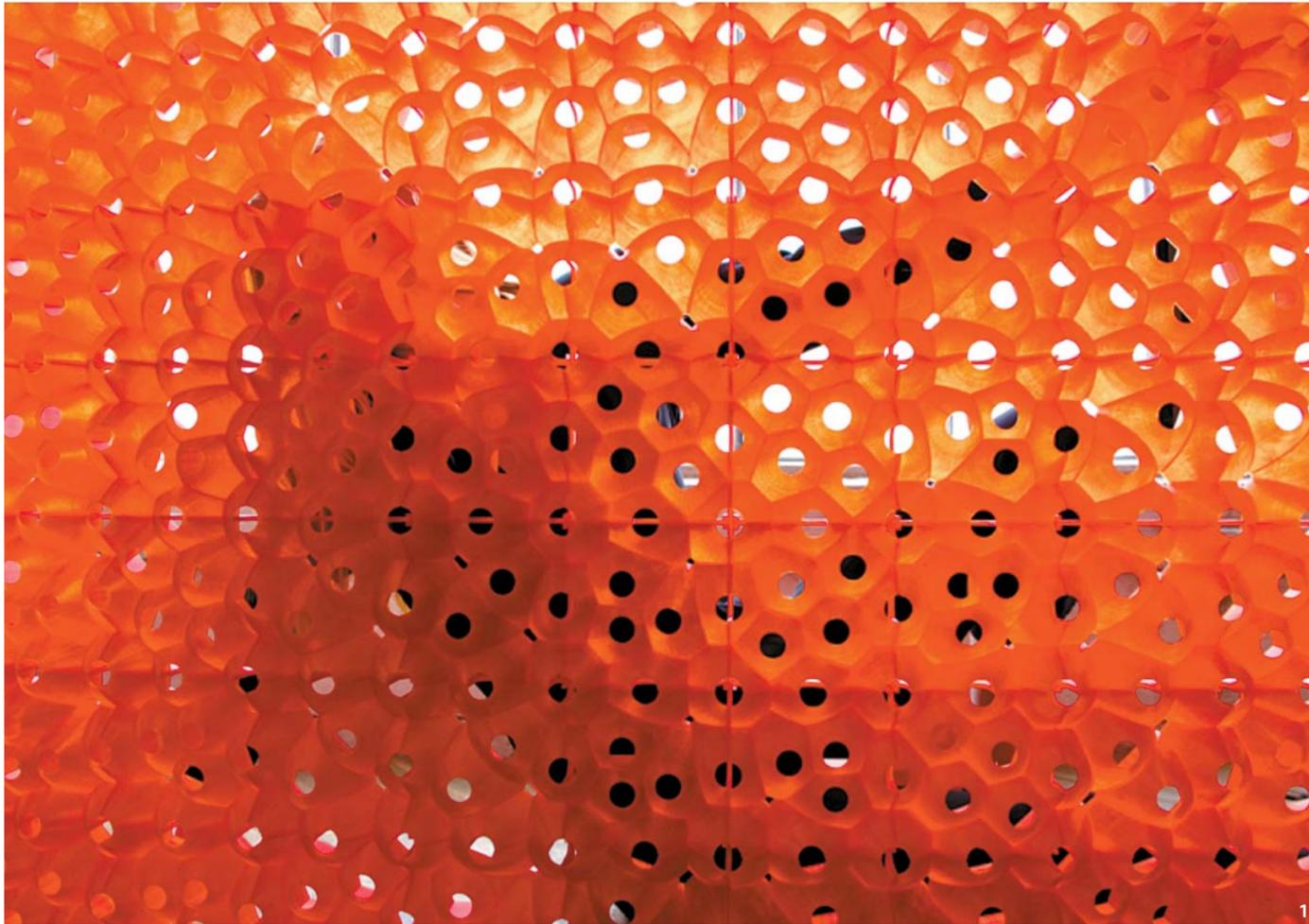
Please scan the QR code for more Korean language learning resources.  
Source: 세종 누리 학당(Nuri-King Sejong Institute) www.sejonghakdang.org



3D프린팅, 로봇, 무인 운송수단 등 SF영화에서나 보던 신기하고 놀라운 기술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중 3D프린터는 원하는 물건을 간편하고 정교하게 만들 수 있어 대중의 큰 관심을 모은다. 3D프린터의 활용은 건축으로까지 이어져 현재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글·사진=이지은 <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

**HYUNDAI E&C TODAY**  
http://news.hdec.kr  
Vol.341  
2017/09/13/Wednesday

# 건설의 혁신, 3D프린팅



기존에 사용되던 2D프린터는 결과 값을 평면에 인쇄했다. 하지만 3D프린터는 입체적으로 대상을 '만들어'낸다. 제조업에서는 3D프린팅을 활용한 제품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으며, 3D프린터로 제작된 옷들을 선보인 패션쇼가 파리에서 열리기도 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미래학자 레이먼드 커즈와일은 "7년 후에는 옷도 3D프린터로 만들어져 완제품 옷이 무게당 몇 원밖에 안 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옷의 도면만 갖고 '누구나' 그 자리에서 옷을 '출력'해 입을 수 있는 세상이 온다는 말이다. 이처럼 3D프린팅의 장점은 '누구나 쉽게 만들어내는' 것에 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애플 등은 개인 컴퓨터에서 3D프린팅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3D프린팅 기술은 건설 업계에서도 큰 관심사다. 2014년 4월 중국 잉추안 신소재 주식회사(Yingchuang New Material Inc.)는 4대의 거대한 3D프린터를 이용해 하루 만에 200㎡ 규모의 집 10채를 선보였다. 이 주택은 시멘트와 유리섬유를 활용해 구조물을 만든 후 조립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독일 암스테르담에서는 DUS사가 '3D프린트 캐널 하우스(canal house)'를 건설 중이고, 스칸스카(SKANSKA),

포스터 앤드 파트너스(Foster & Partners) 같은 세계적 건설사들도 3D프린팅 건설 상용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건축에서의 3D프린팅의 장점은 원하는 형태로 자유롭게 출력물을 만들

산업혁명의 선구자들이 시도한 혁신의 공통점과 3D프린터로 지은 건축들을 사례를 보며 생각해 보자.

### 핵심은 협업이다

무인 비행기 드론을 최초로 개발한 3D

곳곳의 전문가들과 아이디어를 활발히 공유했다. 획기적인 제품을 창조하는 것이야말로 결과적으로는 더 큰 이익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내 건설사가 3D프린팅의 시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타

산업과의 융합이 필수다. 재료공학자·기계공학자 등 각 분야 전문가와 활발히 교류하면 기존과는 다른 공법과 디자인을 갖춘 건물이 만들어진다. 또한 3D프린팅 전문가들은 요리전문가가 자신만의 레시피를 공개하는 것처럼 노하우를 적극 공개해야 한다. 대중이 건축 활동에 관심을 갖고 쉽게 소품이나 공간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이 융합된다면 3D프린팅의 기술은 점차 진보할 것이고, 이는 3D로보틱스의 사례처럼 건설사에 크나큰 경쟁력이 될 것이다.

### 건축 생산성은 자재의 혁신

건축자재 혁신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건축 관련 3D프린팅 재료는 콘크리트와 같이 기존 건축자재와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 다양한 재료들이 사용될 것이며, 이를 위해 유수의 기업에서 연구개발 중이다.

1 네덜란드 캐널 하우스에 적용된 피코로코 블록. 2 베니치아 수로에 프로토셀(Protecell)이 적용된 조감도. 프로토셀은 이산화탄소를 석회석으로 바꾼다. 이를 이용하면 스스로 자라는 건축물을 만들 수 있다. 3 유럽우주국(ESA)이 지을 예정인 달 주택 상상도. 4 3D프린터로 출력된 재료들로 오픈소스 건축 커뮤니티 '위키 하우스'가 집을 짓고 있다. 5 중국 잉추안 신소재 주식회사가 3D프린터로 지은 소형 주택 모습.

잉추안 신소재 주식회사가 개발한 크레이지 매직 스톤(CMS, Crazy Magic Stone)은 자연 재료와 유사한 질감을 갖고 있다. 크레이지 매직 스톤은 자연 재료를 대체하는 재료로 개발 중이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3D프린팅 기술로 세워지고 있는 캐널 하우스에는 합성수지 계열이나 피코로코 블록(picoroco block)과 같은 신재료가 실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달과 같이 특수 지역인 경우 현지의 재료를 활용해 3D프린팅을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건축자재가 바뀌면 건축 형태·공법도 새롭게 바뀐다. 3D프린트 소재의 혁신은 곧 건축의 혁신이 될 것이다. 그러나 3D프린팅 기술에만 집중해서는 미래를 준비하기 어렵다. 몇 수 더 앞을 내다봐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드론·로봇·인공지능·나노기술 등 여러 기술을 융합해 건설산업의 혁신을 창조해야 한다. 세계의 많은 학자가 언급했듯, 한국은 새로운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데 좋은 조건을 갖춘 나라다. 그러나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혁신 문화'나 '기업가 정신'은 여전히 미약하다. 오늘날의 기업은 '혁신하느냐, 도태되느냐(현재의 모습을 유지하느냐)'라는 중요한 딜레마에 놓여 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국내 건설사들은 반드시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 3D프린팅 기술은 한국의 건설산업을 세계화할 수 있는 혁신의 시점이 될 것이다.

##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각 분야 전문가&대중과 협업하고 공유... 혁신이 곧 경쟁력이 된다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3D프린터를 이용한 건축이 본격화될 경우 DIY(Do It Yourself)로 원하는 형태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건설 폐기물이 줄고, 운송비가 절감되며, 건물을 재건축할 때도 재료를 녹인 후 재활용할 수 있다. 물론 안전성 문제 등 아직은 모든 건설 단계의 이야기지만, 관련 연구와 검증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국내 건설사들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발맞춰야 할까. 제4차

로보틱스(Robotics) 공동대표 호르디 무뇨스(Jordi Munoz)는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과 교류하며 혁신을 창조했다. 호르디 무뇨스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크리스 앤더슨(Chris Anderson)을 만나 3D로보틱스를 공동으로 설립했으며, 같은 방식으로 많은 전문가와 후원자들을 만나 다양한 종류의 드론을 개발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회사들이 3D로보틱스의 기술을 도용해 저가의 제품을 출시했다. 호르디 무뇨스는 이에 개의치 않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세계



우리 회사가 기술교류형 해외봉사단 H-Contech를 출범한 가운데 1기 봉사단이 8월 14일부터 26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활동을 펼쳤다. H-Contech는 개발도상국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교류 활동도 병행하는 새로운 형식의 해외 CSR을 선보였다. 글=김보나

HYUNDAI E&C TODAY  
http://news.hdec.kr  
Vol.341  
2017/09/13/Wednesday



1 기술교류 활동 후 현지 학생 및 관계자들과 함께한 단체 사진. 2 아이들의 열띤 참여를 이끌어냈던 교육 봉사 시간. 3 학교 건물 돌리에 펜스를 설치하고 건물을 도색하는 환경 미화에 나선 봉사단원들. 4 배드민턴 코र्ट도 봉사단원들이 손수 제작했다.

## 기술교류형 해외봉사단 H-Contech 1기 CSR의 새로운 장을 열다

### 기술과 문화로 한국을 알리다

지난 7월 임직원 10명과 대학생 봉사자 34명 등 총 44명으로 구성된 기술 교류 해외봉사단 'H-Contech'가 출범했다. 현대건설의 'H'와 'Construction' 'Technology'의 앞 글자를 따 만든 H-Contech는 말 그대로 건설 기술교류와 함께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기존의 해외 CSR은 현장 인근 지역에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지원 활동을 벌이거나, 개발도상국에서 시설물을 짓는 노력 봉사 및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봉사 형식이었다. H-Contech는 기존 활동의 장점에 기술교류라는 특징을 추가해 개발도상국에 진출한 현장 주변 지역 개발 및 현장 지원에 힘쓰고, 현대건설의 기술력을 알려 주주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신설됐다.

1기 봉사단은 임직원 15대 1, 대학생 봉사자 2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됐다. 건설 기술 관련 활동이 포함되기 때문에 대학생 선발 인원의 80%를 이공계 대학생으로 구성했다. 첫 번째 봉사 지역은 우리 회사가 지역발전소를 건립 중인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의 사물라 지역. 1기 H-Contech 봉사단은 8월 15일부터 21일까지 사물라 지역 봉사활동을, 22일부터 25일까지 인도네시아 국립대학에서 기술교류 활동을 실시했다.

### '진심'이 통했던

#### 5개 마을 노력·교육 봉사 활동

지역 봉사가 이뤄진 곳은 사물라 지역 발전소 현장 인근의 롬반제안, 시바간딩 등 총 5개 마을이다. 참가자들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도착해 다시 국내선 비행기로 두 시간가량을 이동한 끝에 사물라 지역에 도착할 수 있었다.

사전 답사로 조사한 학교 시설은 열악하기 그지없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학교마다 화장실을 보수 또는 신축하는 일이었다. 봉사단은 놀이터가 따로 없는 환경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놀이터 삼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펜스를 설치하고, 인도네시아 국민 스포츠라 불리는 배드민턴을 즐길 수 있는 코र्ट도 새로 조성했다. 노력 봉사와 더불어 실시한 과학교육 봉사에서는 아이들에게 태양 광 랜턴 만드는 법을 가르쳤다. 참가자들은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랜턴에 불이 들어오자 무척 기뻐하는 아이들 덕분에 모두가 감동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난상 초등학교의 시라반 교감선생님은 "아이들은 봉사단들과 함께한 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라며 "아이들을 가족같이 대해준 봉사단원들에게 무척 감사하다"고 말했다.

지역 봉사 이틀째인 8월 17일에는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인도네시아의

독립기념일 행사가 열렸다. 5개 마을 주민 2000여 명이 모두 모여 잔치를 벌인 이날 행사에서 대학생 단원들은 꼭두각시 공연과 깃발춤, 현지 동요 율동 공연으로 한국의 문화를 알렸다.

#### 기술 세미나로 해외 주주 뒷받침

사물라 인근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마친 참가자들은 8월 22일 인도네시아 국립대학(Universitas Indonesia)과의 기술교류 세미나와 문화 교류를 위해 자카르타로 이동했다. 인도네시아 국립대학은 인도네시아 공공부문에 수많은 인재를 배출한 일류 대학으로 알려져 있다. 세미나의 주제는 '에너지 및 스마트 시티'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해당 분야에 관심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UI 공과대학과 협의한 끝에 선정했다. H-Contech만의 차별화된 특징인 기술교류 세미나를 위해 이석훈 전무를 비롯한 연구개발본부의 임직원도 함께 참여하며 심혈을 기울였다. 세미나에는 UI 공과대학 교수와 학생은 물론, 인도네시아 건축·인프라·전력 관련 국가기관과 발주처, 현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첫날 기술교류 세미나에서 이석훈 전무와 신용승 부장대우, 신성욱 대리, 안지에 대리 등 연구개발본부 소속 임직원

다섯 명은 ▶4차 산업혁명과 건설 ▶글로벌 에너지 산업 트렌드 ▶재생 에너지 ▶스마트시티와 스마트 건설 ▶스마트 교통 기술에 대해 발표했다. UI 측에서도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및 스마트시티 산업현황에 대해 소개하며 최신 트렌드를 공유했다.

#### 건설 기술과 CSR의 만남,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실시

오리엔테이션부터 인도네시아 파견 후 수료식까지 계속된 적정기술 과제 수행은 대학생 봉사단원들이 전공을 살려 H-Contech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었다. 적정기술이란 개발도상국의 삶의 질 향상과 빈곤 개선을 위해 지역 상황에 알맞은 해법을 제시하는 기술이다. 대학생 참가자들은 현지에 도착한 이후 본격적으로 적정기술 과제를 준비했다. 마을 이장들을 직접 인터뷰하며 주거환경 개선 니즈를 파악한 단원들은 기술적 대안에 대해 틈틈이 아이디어를 내고, 이틀간의 세미나 기간에 현지 대학생과 의견을 교류하며 아이디어를 발전시켰다. 멘토로 참여한 직원 봉사단원들은 기술적인 부분은 물론 사업화에 대해서도 조언하며 함께

머리를 맞췄다. 대학생 단원들은 한국에 돌아와 해산한 후에도 조별로 내용을 보충해 9월 1일 해산식에서 과제 내용을 발표했다. 심사에 참여한 우리 회사 관계자 및 서울대 연구원들은 전반적으로 완성도 높은 제안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커피콩을 건조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 건설을 제안한 E조가 우수상을 차지했으며, 수도가 필요 없는 친환경 바이오 화장실 등의 지역 밀착형 아이디어도 눈길을 끌었다. 우리 회사는 사업성과 현지 활용성을 갖춘 아이টে에 대해 추후 실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현지의 다양한 돌발 상황에도 불구하고 H-Contech는 전례가 없었던 기술교류형 해외 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개발도상국과 관(官)·학(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대건설의 기술력을 알릴 수 주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1기 해산식을 마친 지 2주가 채 되지 않은 9월 중순부터 H-Contech는 2기 활동 준비에 들어간다. 활동 지역 선정 및 선정과 현지 답사 등을 거쳐 2018년 1~2월에 2기가 파견될 예정이다.



### MINI Interview

#### 대학생 단원 이기대 중앙대학교 건축공학과

신체적으로 힘들었던 노력 봉사. 대학생들의 능력만으로는 쉽지 않았던 적정기술 과제였지만 모두 힘을 합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조가 문화 공연을 네 번이나 했던 점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에서 한국 홍보 부스를 운영했는데요, 한국 음식을 선보이고 한복 체험을 하는 등 K팝 외에도 흥미로운 한국 문화가 많은 것을 알릴 수 있어 자랑스러웠습니다.

#### 직원 봉사단원 이영석 사원 연구개발본부 에너지환경연구개발실

노력 봉사나 교육 봉사뿐 아니라 현대건설의 기술력을 알리는 데까지 직원들과 대학생들이 함께했다는 점에서 무척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작은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성공적으로 활동을 마치고 꽤 더욱 뜻깊습니다. H-Contech 활동이 앞으로도 계속 성공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를 토대로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CSV 활동의 중요한 발판이 됐으면 합니다.



6 인도네시아 시나르마스 아파트 Lot 16 현장을 찾은 단원들. 7 인도네시아 국립대학에서 열린 기술 세미나에 교수와 학생, 인도네시아 건축 관계자들이 모였다. 8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 행사에 인상 깊은 전통 공연을 펼친 대학생 봉사자들.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천재지변은 사람의 힘으로 막기 어렵다. 특히 여름철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와 주택, 차량이 물에 잠기고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자연의 재앙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규모 수방 대책사업인 빗물 저류터널 공사를 우리 회사가 국내 최초로 수행하고 있다. 글=김승희 / 사진=이슬기

HYUNDAI E&C TODAY http://news.hdec.kr Vol.341 2017/09/13/Wednesday



1.2 신월 빗물저류 배수시설 현장 전경. 3 유 지관리 수직구 전경. 4 배수터널 현장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들 모습. 5.6 정유지 수직 구 전경. 7 유도터널 라이닝 콘크리트 시공 전경. 8 현장에서 작업 중인 직원들.

# Completely preventing flood damage: Korea's first 'rainwater tunnel' construction site



Seoul was flooded in summer of 2010 when a record rainstorm hit some parts of Korea. After the unprecedented torrential rainfall, Seoul Metropolitan City came up with urgent flood control measures. The Sinwol rainwater retention-drainage facility project is one of the key initiatives proposed by the city government. Hyundai E&C kicked off the project in May 2013 with an aim to build a tunnel-type rainwater tank, 10 meters in diameter and 4.7 kilometers long,

50 meters below ground. The rainwater tank with a retention capacity of up to 320,000 tons of rainwater was designed to store rainwater and then drain it to the Anyangcheon Stream in case of heavy downpours in Yangcheon and Gangseo areas. The completion of the facility will be scheduled in December 2018 will enable the flood-prone areas to hold a heavy rain falling at 100mm per hour. The construction site had to face challenges even in the early stage of the construction. Hyundai E&C was awarded

the project in March 2013 on a turnkey basis in a way that a contractor providing the lowest price is selected among bidders offering suitable designs. The builder had a twofold difficulty with regards to both designing and construction since the project is based on a turnkey contract. The Sinwol rainwater retention-drainage facility project, the first of its kind in the country, involved high risks, which led to errors in designing. Unlike the figures of the numerical analysis program, experiments using hydraulic

modeling in scale 1:50 indicated that the power of reflected wave forced the inflowing water to flow backwards. A major reason for this phenomenon was that variables not found in the numerical analysis program cut back on the retention capacity. As a result of redesigning, the construction site reached a new conclusion and decided to increase the diameter of the tunnel from 7.5 meters to 10 meters to achieve the most stable possible results. However, the additional construction cost 24.1 billion won and

increased the schedule by 20 months. What's worse, unlike what was expected in the original design, the construction site had to work on a soft ground in reality. To deal with these, employees working at the construction site made efforts to persistently persuade Seoul Metropolitan City and maintain negotiation with the client for two years. Consequently, the construction company obtained approval for the project delay and the additional change in the design from the client, which contributed to curbing an increase

in construction costs. As of the end of August, 57 percent of the construction has been finished. As the project is about halfway done, a number of local governments are paying special attention to the Sinwol rainwater retention-drainage facility project.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Sinwol project is expected to have an effect on the decision of local self-governing bodies including Seoul, Changwon and Busan where several areas are prone to floods to build a rainwater tunnel.

## 침수 피해를 원천봉쇄하라! 도심 관통하는 국내 최초 '빗물터널' 현장

시간당 100mm 폭우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 2010년 여름, 기습폭우로 인해 서울 곳곳에서 물난리가 났다. 당시 서울의 심장부인 광화문이 물에 잠겼고 강서구 화곡동과 신월동 일대 등 저지대는 물바다로 변했다. 유례없는 폭우에 서울시는 긴급 수방대책에 들어갔다. 신월 빗물저류 배수시설 공사는 이 같은 대책의 핵심사업 중 하나다. 지난 8월 4일 오후 양천구 신정동 오목교역에서 내려 100m 남짓 걸자 신월 빗물저류 배수시설 현장 사무실이 보였

다. 공사 총괄부장의 안내에 따라 안전 장비와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후 수직구에 설치된 철제 계단을 따라 지하 50m 아래로 한참을 내려갔다. 현장 관계자는 "공사 담당 직원들은 아파트 20층 높이에 달하는 지하 계단을 하루에 4~5차례 왕복한다"고 말했다. 습기뿐 아니라 먼지-매연이 발생하는 지하터널 현장을 승강기 없이 오르내려야 하는 현장 직원들의 고충이 얼마나 큰지 상상조차 힘들었다. 수직구 바닥과 맞물린 배수터널 입구는 지하철 한 량은 충분히 오갈 수 있을 만한 터널이 길게 뻗어 있었다. 터

널 벽면은 콘크리트로 깔끔하게 라이닝한 후 방수 작업까지 거의 완료한 상태로, 여러 대의 포클레인이 바쁘게 움직이며 잔여 작업을 하고 있었다. 2013년 5월에 착공한 신월 빗물저류 배수시설 공사는 지하 50m에 직경 10m, 길이 4.7km, 최대 32만t까지 저류할 수 있는 터널형 빗물탱크를 조성해 양천-강서 지역 집중호우 시 빗물을 불잡아 댐다가 목동 유수지구 유입시켜 인근 안양천으로 배수하는 시설을 만드는 사업이다. 2018년 12월 완공하면 양천구-강서구의 상습 침수지역이 시

간당 100mm의 집중호우에도 견딜 수 있게 된다. 설계 오류, 지질 여건 등 수많은 난관을 돌파하다 현장은 공사 초기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2013년 3월 당시 최초로 적용된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으로 공사를 수주했지만, 최저가 입찰임에도 불구하고 터널공사 성격상 설계-시공분을 우리 회사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안았다. 선례가 없는 국내 최초 사업이다 보니 리스크는 컸고, 결국 설계 오류가

발생했다. 수차례서 프로그램상 직경 7.5m, 18만t 저류용량으로 설계검증이 완료돼 입찰을 진행했지만, 실제 크기를 50분의 1로 축소한 수리모형 실험에서 물이 유입되다가 반사파력에 의해 역류현상이 발생한 것. 수차례서 프로그램에서 발견하지 못한 변수들로 인해 저류용량이 줄어든 게 주요 원인이었다. 현장은 전면 재설계에 들어갔다. 터널 직경을 7.5m에서 10m로 넓히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 비용만 241억원에 달했다. 설계 오류로 인한 추가 공사비만 아니라 재

인반고 발주처로부터 추가 설계변경까지 받아내 원가 상승을 줄일 수 있었다. 8월 말 현재 57%의 공정률로 험난한 여정의 절반이 지난 신월 빗물저류 배수시설 현장. 현장은 여러 지자체의 시선 을 한 몸에 받고 있다. 현장의 성공적 완공 여부에 따라 서울-창원-부산 등 상습 침수 구간의 지자체들이 빗물터널 공사 시행을 결정할 예정이다. 갖은 어려움 속 에서 작업 중인 현장 직원들의 고충이 설득하고 이해시키며 협상을 이어나갔다. 그 결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 설계 오류로 인한 공기 연장을 승

인반고 발주처로부터 추가 설계변경까지 받아내 원가 상승을 줄일 수 있었다. 8월 말 현재 57%의 공정률로 험난한 여정의 절반이 지난 신월 빗물저류 배수시설 현장. 현장은 여러 지자체의 시선 을 한 몸에 받고 있다. 현장의 성공적 완공 여부에 따라 서울-창원-부산 등 상습 침수 구간의 지자체들이 빗물터널 공사 시행을 결정할 예정이다. 갖은 어려움 속 에서 작업 중인 현장 직원들의 고충이 설득하고 이해시키며 협상을 이어나갔다. 그 결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 설계 오류로 인한 공기 연장을 승

인반고 발주처로부터 추가 설계변경까지 받아내 원가 상승을 줄일 수 있었다. 8월 말 현재 57%의 공정률로 험난한 여정의 절반이 지난 신월 빗물저류 배수시설 현장. 현장은 여러 지자체의 시선 을 한 몸에 받고 있다. 현장의 성공적 완공 여부에 따라 서울-창원-부산 등 상습 침수 구간의 지자체들이 빗물터널 공사 시행을 결정할 예정이다. 갖은 어려움 속 에서 작업 중인 현장 직원들의 고충이 설득하고 이해시키며 협상을 이어나갔다. 그 결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 설계 오류로 인한 공기 연장을 승



정성민 차장, 이용길 부대, 권영제 차장, 김민수 현장소장 (왼쪽부터)

### INTERVIEW

## “더 이상의 원가 상승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현장이 또 있을까? 시행을 약화, 공기 지연, 실세 없는 민원... <사보신론>은 수많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현장 직원들을 만났다.

□ 현장에 대해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민수 부장(이하 현장소장) 우리 현장은 현대건설 프랜차이즈 정성이 가장 많이 반영된 현장으로, 국내에서 처음 추진하는 침수예방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회사가 국내 최초, 최장, 최고 등 힘든 공사를 많이 수행해왔어요. 우리 현장은 향후에 발주될 수많은 도심지 터널 프로젝트의 기술력 집약 차원에서 수주한 거죠. 여름철 폭우로 인해 강서구 화곡동과 양천구 신정동 저지대에 발생하는 상습침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나와 발목이 잠긴 상태에서 작업하기도 했고, 연약한 지반으로 인해 터널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도 두 번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 피해 없이 연구개발분부를 동원, 보강 공법을 적용해 즉각적으로 대처했죠.

□ 도심지 공사다 보니 민원이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권영제 차장 작금 전부터 현재까지 집계된 민원 건수만 300여 건에 이릅니다. 민원에 시달리지 않는 날은 명절 때뿐이죠(웃음). 민원인들이 발주처인 서울시를 방문하고 국회의원도 동원해 정발 했었죠. 그 래도 민원처리 배상보험에 가입해 보충처리를 할 수 있어 원가절감이 가능했습니다. 민원뿐 아니라 국내 최초 사업이다 보니 외부에서 현장 견학을 비롯해 점검 등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와요. 안 그래도 바쁜 현장에 애로사항 중 하나죠.

□ 도심지 공사다 보니 민원이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권영제 차장 작금 전부터 현재까지 집계된 민원 건수만 300여 건에 이릅니다. 민원에 시달리지 않는 날은 명절 때뿐이죠(웃음). 민원인들이 발주처인 서울시를 방문하고 국회의원도 동원해 정발 했었죠. 그 래도 민원처리 배상보험에 가입해 보충처리를 할 수 있어 원가절감이 가능했습니다. 민원뿐 아니라 국내 최초 사업이다 보니 외부에서 현장 견학을 비롯해 점검 등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와요. 안 그래도 바쁜 현장에 애로사항 중 하나죠.

□ 가장 어려운 공정을 끝냈다고 들었는데요. 정성민 차장(이하 정 차장) 국내 최초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 매 공정마다 고비의 연속이었습니 다. 지난 6월 26일에는 빗물저류 배수터널(3.6km), 빗물유도 터널(1.1km) 등 총 4.7km의 전 구간 터널을 성공적으로 관통했는데요. 24시간 주야 교대작업으로 하루 에 7, 8회까지 발파작업을 강행한 결과물이지요. 열악한 작업 환경 속 에서도 중대재해 없이 가장 난해하고 복잡한 공정을 터널을 무사히 관통할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이 있는지 모릅니다. 서울시와 협의 해 수해방지 기간인 7월부터 9월 까지 폭우 피해를 막기 위해 임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 준공하게 되면 축구장 5개 면적에 해당하는 32만t의 빗물을 저류할 수 있게 됩니다.

□ 도심지 공사다 보니 민원이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권영제 차장 작금 전부터 현재까지 집계된 민원 건수만 300여 건에 이릅니다. 민원에 시달리지 않는 날은 명절 때뿐이죠(웃음). 민원인들이 발주처인 서울시를 방문하고 국회의원도 동원해 정발 했었죠. 그 래도 민원처리 배상보험에 가입해 보충처리를 할 수 있어 원가절감이 가능했습니다. 민원뿐 아니라 국내 최초 사업이다 보니 외부에서 현장 견학을 비롯해 점검 등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와요. 안 그래도 바쁜 현장에 애로사항 중 하나죠.

□ 가장 어려운 공정을 끝냈다고 들었는데요. 정성민 차장(이하 정 차장) 국내 최초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 매 공정마다 고비의 연속이었습니 다. 지난 6월 26일에는 빗물저류 배수터널(3.6km), 빗물유도 터널(1.1km) 등 총 4.7km의 전 구간 터널을 성공적으로 관통했는데요. 24시간 주야 교대작업으로 하루 에 7, 8회까지 발파작업을 강행한 결과물이지요. 열악한 작업 환경 속 에서도 중대재해 없이 가장 난해하고 복잡한 공정을 터널을 무사히 관통할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이 있는지 모릅니다. 서울시와 협의 해 수해방지 기간인 7월부터 9월 까지 폭우 피해를 막기 위해 임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 준공하게 되면 축구장 5개 면적에 해당하는 32만t의 빗물을 저류할 수 있게 됩니다.

□ 가장 어려운 공정을 끝냈다고 들었는데요. 정성민 차장(이하 정 차장) 국내 최초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 매 공정마다 고비의 연속이었습니 다. 지난 6월 26일에는 빗물저류 배수터널(3.6km), 빗물유도 터널(1.1km) 등 총 4.7km의 전 구간 터널을 성공적으로 관통했는데요. 24시간 주야 교대작업으로 하루 에 7, 8회까지 발파작업을 강행한 결과물이지요. 열악한 작업 환경 속 에서도 중대재해 없이 가장 난해하고 복잡한 공정을 터널을 무사히 관통할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이 있는지 모릅니다. 서울시와 협의 해 수해방지 기간인 7월부터 9월 까지 폭우 피해를 막기 위해 임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 준공하게 되면 축구장 5개 면적에 해당하는 32만t의 빗물을 저류할 수 있게 됩니다.

□ 가장 어려운 공정을 끝냈다고 들었는데요. 정성민 차장(이하 정 차장) 국내 최초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 매 공정마다 고비의 연속이었습니 다. 지난 6월 26일에는 빗물저류 배수터널(3.6km), 빗물유도 터널(1.1km) 등 총 4.7km의 전 구간 터널을 성공적으로 관통했는데요. 24시간 주야 교대작업으로 하루 에 7, 8회까지 발파작업을 강행한 결과물이지요. 열악한 작업 환경 속 에서도 중대재해 없이 가장 난해하고 복잡한 공정을 터널을 무사히 관통할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이 있는지 모릅니다. 서울시와 협의 해 수해방지 기간인 7월부터 9월 까지 폭우 피해를 막기 위해 임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 준공하게 되면 축구장 5개 면적에 해당하는 32만t의 빗물을 저류할 수 있게 됩니다.

□ 가장 어려운 공정을 끝냈다고 들었는데요. 정성민 차장(이하 정 차장) 국내 최초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 매 공정마다 고비의 연속이었습니 다. 지난 6월 26일에는 빗물저류 배수터널(3.6km), 빗물유도 터널(1.1km) 등 총 4.7km의 전 구간 터널을 성공적으로 관통했는데요. 24시간 주야 교대작업으로 하루 에 7, 8회까지 발파작업을 강행한 결과물이지요. 열악한 작업 환경 속 에서도 중대재해 없이 가장 난해하고 복잡한 공정을 터널을 무사히 관통할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이 있는지 모릅니다. 서울시와 협의 해 수해방지 기간인 7월부터 9월 까지 폭우 피해를 막기 위해 임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 준공하게 되면 축구장 5개 면적에 해당하는 32만t의 빗물을 저류할 수 있게 됩니다.

□ 가장 어려운 공정을 끝냈다고 들었는데요. 정성민 차장(이하 정 차장) 국내 최초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 매 공정마다 고비의 연속이었습니 다. 지난 6월 26일에는 빗물저류 배수터널(3.6km), 빗물유도 터널(1.1km) 등 총 4.7km의 전 구간 터널을 성공적으로 관통했는데요. 24시간 주야 교대작업으로 하루 에 7, 8회까지 발파작업을 강행한 결과물이지요. 열악한 작업 환경 속 에서도 중대재해 없이 가장 난해하고 복잡한 공정을 터널을 무사히 관통할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이 있는지 모릅니다. 서울시와 협의 해 수해방지 기간인 7월부터 9월 까지 폭우 피해를 막기 위해 임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 준공하게 되면 축구장 5개 면적에 해당하는 32만t의 빗물을 저류할 수 있게 됩니다.

□ 가장 어려운 공정을 끝냈다고 들었는데요. 정성민 차장(이하 정 차장) 국내 최초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 매 공정마다 고비의 연속이었습니 다. 지난 6월 26일에는 빗물저류 배수터널(3.6km), 빗물유도 터널(1.1km) 등 총 4.7km의 전 구간 터널을 성공적으로 관통했는데요. 24시간 주야 교대작업으로 하루 에 7, 8회까지 발파작업을 강행한 결과물이지요. 열악한 작업 환경 속 에서도 중대재해 없이 가장 난해하고 복잡한 공정을 터널을 무사히 관통할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이 있는지 모릅니다. 서울시와 협의 해 수해방지 기간인 7월부터 9월 까지 폭우 피해를 막기 위해 임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 준공하게 되면 축구장 5개 면적에 해당하는 32만t의 빗물을 저류할 수 있게 됩니다.

□ 가장 어려운 공정을 끝냈다고 들었는데요. 정성민 차장(이하 정 차장) 국내 최초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 매 공정마다 고비의 연속이었습니 다. 지난 6월 26일에는 빗물저류 배수터널(3.6km), 빗물유도 터널(1.1km) 등 총 4.7km의 전 구간 터널을 성공적으로 관통했는데요. 24시간 주야 교대작업으로 하루 에 7, 8회까지 발파작업을 강행한 결과물이지요. 열악한 작업 환경 속 에서도 중대재해 없이 가장 난해하고 복잡한 공정을 터널을 무사히 관통할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이 있는지 모릅니다. 서울시와 협의 해 수해방지 기간인 7월부터 9월 까지 폭우 피해를 막기 위해 임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 준공하게 되면 축구장 5개 면적에 해당하는 32만t의 빗물을 저류할 수 있게 됩니다.

□ 가장 어려운 공정을 끝냈다고 들었는데요. 정성민 차장(이하 정 차장) 국내 최초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 매 공정마다 고비의 연속이었습니 다. 지난 6월 26일에는 빗물저류 배수터널(3.6km), 빗물유도 터널(1.1km) 등 총 4.7km의 전 구간 터널을 성공적으로 관통했는데요. 24시간 주야 교대작업으로 하루 에 7, 8회까지 발파작업을 강행한 결과물이지요. 열악한 작업 환경 속 에서도 중대재해 없이 가장 난해하고 복잡한 공정을 터널을 무사히 관통할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이 있는지 모릅니다. 서울시와 협의 해 수해방지 기간인 7월부터 9월 까지 폭우 피해를 막기 위해 임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 준공하게 되면 축구장 5개 면적에 해당하는 32만t의 빗물을 저류할 수 있게 됩니다.

□ 가장 어려운 공정을 끝냈다고 들었는데요. 정성민 차장(이하 정 차장) 국내 최초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 매 공정마다 고비의 연속이었습니 다. 지난 6월 26일에는 빗물저류 배수터널(3.6km), 빗물유도 터널(1.1km) 등 총 4.7km의 전 구간 터널을 성공적으로 관통했는데요. 24시간 주야 교대작업으로 하루 에 7, 8회까지 발파작업을 강행한 결과물이지요. 열악한 작업 환경 속 에서도 중대재해 없이 가장 난해하고 복잡한 공정을 터널을 무사히 관통할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이 있는지 모릅니다. 서울시와 협의 해 수해방지 기간인 7월부터 9월 까지 폭우 피해를 막기 위해 임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 준공하게 되면 축구장 5개 면적에 해당하는 32만t의 빗물을 저류할 수 있게 됩니다.

□ 가장 어려운 공정을 끝냈다고 들었는데요. 정성민 차장(이하 정 차장) 국내 최초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 매 공정마다 고비의 연속이었습니 다. 지난 6월 26일에는 빗물저류 배수터널(3.6km), 빗물유도 터널(1.1km) 등 총 4.7km의 전 구간 터널을 성공적으로 관통했는데요. 24시간 주야 교대작업으로 하루 에 7, 8회까지 발파작업을 강행한 결과물이지요. 열악한 작업 환경 속 에서도 중대재해 없이 가장 난해하고 복잡한 공정을 터널을 무사히 관통할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이 있는지 모릅니다. 서울시와 협의 해 수해방지 기간인 7월부터 9월 까지 폭우 피해를 막기 위해 임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 준공하게 되면 축구장 5개 면적에 해당하는 32만t의 빗물을 저류할 수 있게 됩니다.



1%, 확인은 99%입니다. 내가 시킨 일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발로 뛰라는 거죠. 직원들이 계단을 하루에 수차례씩 오르내리라며 체력 소모가 클 테지만 그래도 직접 가서 확인하게끔 계속 숙려하는 편입니다.

□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정 차장 직원 개개인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현장의 문제점에 적극 반영하면서 힘든 고비를 잘 극복해 왔습니다. 24시간 주야 교대했던 어려운 터널 발파 공정은 지나갔지만, 남은 공사기간도 돌관 작업을 해야 합니다. 공기도 중요하지만 최종 결과물의 품질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이 현장의 품질과 직결된다는 생각으로 완공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현장소장 워낙 힘든 현장 여건에서 직원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해 미안한 마음입니다. 소정으로서 현장 전 직원을 독려해 어려운 고비를 같이 헤쳐 나가야죠. 우리 현장으로 인해 회사가 지금보다 더 큰 피해 없이 성공적으로 준공하도록 전 직원이 합심할 겁니다. 추후 유사 프로젝트가 수주된다면 우리 현장에서 일한 저희 직원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정 차장 직원 개개인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현장의 문제점에 적극 반영하면서 힘든 고비를 잘 극복해 왔습니다. 24시간 주야 교대했던 어려운 터널 발파 공정은 지나갔지만, 남은 공사기간도 돌관 작업을 해야 합니다. 공기도 중요하지만 최종 결과물의 품질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이 현장의 품질과 직결된다는 생각으로 완공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현장소장 워낙 힘든 현장 여건에서 직원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해 미안한 마음입니다. 소정으로서 현장 전 직원을 독려해 어려운 고비를 같이 헤쳐 나가야죠. 우리 현장으로 인해 회사가 지금보다 더 큰 피해 없이 성공적으로 준공하도록 전 직원이 합심할 겁니다. 추후 유사 프로젝트가 수주된다면 우리 현장에서 일한 저희 직원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정 차장 직원 개개인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현장의 문제점에 적극 반영하면서 힘든 고비를 잘 극복해 왔습니다. 24시간 주야 교대했던 어려운 터널 발파 공정은 지나갔지만, 남은 공사기간도 돌관 작업을 해야 합니다. 공기도 중요하지만 최종 결과물의 품질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이 현장의 품질과 직결된다는 생각으로 완공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현장소장 워낙 힘든 현장 여건에서 직원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해 미안한 마음입니다. 소정으로서 현장 전 직원을 독려해 어려운 고비를 같이 헤쳐 나가야죠. 우리 현장으로 인해 회사가 지금보다 더 큰 피해 없이 성공적으로 준공하도록 전 직원이 합심할 겁니다. 추후 유사 프로젝트가 수주된다면 우리 현장에서 일한 저희 직원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정 차장 직원 개개인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현장의 문제점에 적극 반영하면서 힘든 고비를 잘 극복해 왔습니다. 24시간 주야 교대했던 어려운 터널 발파 공정은 지나갔지만, 남은 공사기간도 돌관 작업을 해야 합니다. 공기도 중요하지만 최종 결과물의 품질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이 현장의 품질과 직결된다는 생각으로 완공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현장소장 워낙 힘든 현장 여건에서 직원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해 미안한 마음입니다. 소정으로서 현장 전 직원을 독려해 어려운 고비를 같이 헤쳐 나가야죠. 우리 현장으로 인해 회사가 지금보다 더 큰 피해 없이 성공적으로 준공하도록 전 직원이 합심할 겁니다. 추후 유사 프로젝트가 수주된다면 우리 현장에서 일한 저희 직원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정 차장 직원 개개인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현장의 문제점에 적극 반영하면서 힘든 고비를 잘 극복해 왔습니다. 24시간 주야 교대했던 어려운 터널 발파 공정은 지나갔지만, 남은 공사기간도 돌관 작업을 해야 합니다. 공기도 중요하지만 최종 결과물의 품질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이 현장의 품질과 직결된다는 생각으로 완공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현장소장 워낙 힘든 현장 여건에서 직원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해 미안한 마음입니다. 소정으로서 현장 전 직원을 독려해 어려운 고비를 같이 헤쳐 나가야죠. 우리 현장으로 인해 회사가 지금보다 더 큰 피해 없이 성공적으로 준공하도록 전 직원이 합심할 겁니다. 추후 유사 프로젝트가 수주된다면 우리 현장에서 일한 저희 직원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정 차장 직원 개개인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현장의 문제점에 적극 반영하면서 힘든 고비를 잘 극복해 왔습니다. 24시간 주야 교대했던 어려운 터널 발파 공정은 지나갔지만, 남은 공사기간도 돌관 작업을 해야 합니다. 공기도 중요하지만 최종 결과물의 품질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이 현장의 품질과 직결된다는 생각으로 완공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현장소장 워낙 힘든 현장 여건에서 직원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해 미안한 마음입니다. 소정으로서 현장 전 직원을 독려해 어려운 고비를 같이 헤쳐 나가야죠. 우리 현장으로 인해 회사가 지금보다 더 큰 피해 없이 성공적으로 준공하도록 전 직원이 합심할 겁니다. 추후 유사 프로젝트가 수주된다면 우리 현장에서 일한 저희 직원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배우 김희선이 '품위있는 그녀'로 거듭났다. 결혼과 출산 후에도 꾸준히 연기활동을 이어온 김희선은 재벌가의 이야기를 다룬 '품위있는 그녀'에서 우아진 역할을 연기하며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았다. 이제는 원숙미가 물씬 풍기는 김희선을 만나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와 배우로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글=노진호 <중앙일보> 기자/사진=한지엔터테인먼트 제공

## ‘우아진’으로 연기파 입증한 김희선 “꺼내서 보여줄 게 많아졌다”



지난 8월 19일 종영한 JTBC 드라마 '품위있는 그녀'가 최종회 시청률 12%(닐슨코리아)를 기록했다. JTBC 드라마 사상 최고의 시청률이다. 종전 최고 시청률은 백미경 작가의 전작 '힙쎈여자 도봉순'의 9.6%였다. 백 작가는 '품위있는...'으로 자신의 종전 시청률 기록을 경신하며 잇따라 히트작을 냈다.

드라마는 재벌가 회장의 재산상속을 노린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등 극단적인 내용으로 한 중견기업의 실제 사건을 모델로 했다는 점이 알려지며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대기업 회장을 유혹하는 간병인 박복자 역의 김선아와 그에 맞서는 둘째 며느리 우아진 역의 김희선 등 연륜 있는 배우들의 연기력 또한 빼놓을 수 없는 흥행요소였다.

지난 8월 16일 서울 논현동에서 김희선을 만났다. 그는 “나는 종편 시청률은 얼마가 나와야 성공한 건지 감이 없는 세대다. 지상파는 드라마 첫 회가 보통 10%씩 나왔는데 '품위있는 그녀'의 첫 시청률은 2%가 나와 깜짝 놀랐다”고 말을 꺼냈다. “‘이민 가야겠구나’ ‘사고 쳐서 노이즈 마케팅이라도 해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tvN 드라마 '비밀의 숲'의 최고 시청률이 6.6%밖에 안 나오는 거 보고 좀 안심이 되더라”고 했다.

백미경 작가는 “처음부터 김희선을 생각하고 우아진 캐릭터를 만들어 김희선이 출연을 안 하겠다고 하면 난감해지는 상황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본을 받아 든 김희선은 정작 박복자 역에 더 큰 매력을 느꼈다고 한다. 상류사회 진입을 위해 사기, 협박 등 물불 가리지 않는 박복자의 캐릭터가 보다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에 비해 우아진 역은 너무 심심해 보였다”고 했다. “복자가 더 재밌을 것 같다고 백미경 작가에게 얘기했더니 ‘아니, 언니만 믿으라’고 하더라”며 “역시 작가 언니 말이 맞았다”고 웃어 보였다.

드라마 마지막 장면에서 박복자는 회장 손자에게 살해당한다. 김희선은 “극본상의 최초 범인은 아무래도 방송용이 아닌 것 같아 결국 수정됐다. 원래 극본의 범인은 방송된 드라마의 범인보다 200배 더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곧 소설로 출간될 예정인데, 그 안의 진짜

범인을 알게 되면 다들 놀랄 것”이라고 말했다.

1990년대 한국 트렌디 드라마의 역사를 논할 때 김희선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배우다. '웨딩드레스'(32.5%), '세상 끝까지'(30.6%), '미스터Q'(38.2%), '토마토'(52.7%) 등 97~99년 3년간 찍은 9편의 드라마 가운데 8편이 시청률 30%를 넘겼다. 98년에는 '미스터Q'에 출연해 역대 최연소인 만 21세의 나이로 SBS 연기대상을 받았다. 아직까지 문근영(2008년 SBS 연기대상)과 함께 이 분야 기록 보유자다.

하지만 연기력이 뛰어나지 않은 배우로 분류됐다. 등장미 소녀 캔디를 연상시키는 청순가련형 캐릭터를 주로 연기했다. “막 달리다가 갑자기 돌아보며 눈물을 흘리는 식의 연기가 90년대 청순가련형 캐릭터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며 “그래도 잘한다고 연기를 칭찬해 주니 열심히 하긴 했는데, 빨리 끝내고 친구들과 놀 생각이 더 많았던 때였다”고 회상했다.

그의 연기력을 다시 보게 된 건 결혼 후 6년 만에 드라마에 복귀해 찍은 MBC 드라마 '신의'(2012년)에서였다. 2015년 MBC '앵그리맘'에서 역할 같은 주부 역할을 실감나게 연기했고, 이번 '품위있는 그녀'로 일약 연기파 배우 반열에 올랐다.

김희선은 “중요한 장면 촬영을 앞두고 하루 전부터 감정 잡으려 애쓰는 배우도 있는데 나는 지구력이 없어서 그렇게는 못한다”며 “몇 분 전까지 떡볶이 먹다가 딱 가서 연기하는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벌써 마흔한 살인데,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보여줄 게 많아진 것 같다. 불편한 자리도 가고 많은 사람을 만난 경험이 차곡 차곡 내 안에 쌓여 연기할 때 꺼내기 쉬워진 것 같다. 그게 좋은 영향을 준 것 같다”고 했다.

그의 다음 행보는 뭘까. 김희선은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다”면서도 “뻘한 반전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김희선은 “현재 예능 '섬총사'에 출연 중인데 드라마 끝난 직후 섬에 들어간다. 거기서 카메라 다 꺼놓고 고민해볼 생각”이라며 “다만 주부 했다고 다음에 형사 연기를 하는 식의 뻘한 반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90년대 트렌디 드라마 시대 이후 제2 전성기 입증 “엄마 되고, 나이 들면서 보여줄 게 차곡차곡 쌓여”



# 나오시마에 대체 뭐가 있을까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조건들 중의 하나가 공간이다. 그래서인지 호모 스파티움(homo spatium)이라 불린 인간은 살면서 특별한 인연을 맺었다고 생각되는 장소 한둘은 갖게 마련이다. 개인적 유토피아라 부를 만한 그곳은 유년기를 보낸 고향일 수도 있고, 여행을 하다 우연히 만난 곳일 수도 있다. 내게는 나오시마라는 일본 가가와현의 작은 섬이 그런 곳이다.

일본 혼슈와 시코쿠 사이의 좁고 긴 바다와 이를 둘러싼 해안 지역을 세토 내해라고 부른다. 이 바다는 우리나라 다도해를 연상시키는 수많은 섬을 품고 있는데, 이 섬들 중 하나가 나오시마다. 나오시마는 예술을 통한 지방 소도시의 재생으로 사회·도시·건축 전문가들의 시선을 끌며 연간 방문객 수십만 명이 다녀가는 명소다. 10년 전 회사 일로 그곳과 처음 만났다. 건축가는 좋은 건축물을 많이 봐야 한다는 회사의 배려로 별안간 며칠 뒤 있을 일본 출장에 따라가라는 통보를 받았다. 어느 도시로 가는지도 모른 채 나는 일행을 따라나섰다. 비행기에서 내리니 벌써 해가 진 저녁, 준비해 둔 버스에 올랐다. 당연히 호텔에 가는 줄 알았는데 차는 우리를 어느 시골 항구에 내려놓았다. 이미 바다는 새까만 밤. 밥이라도 줄줄 알았던 가이드는 우리를 다시 배에 태우더니 섬에 간다고 했고, 저녁은 배에서 컵라면으로 때웠다. 나오시마와의 첫 대면이었다. 다음 날 지금은 유명한 안도 다다오의 지중미술관과 훈무라 지역의 '이에 프로젝트'를 둘러봤다.

그날 지중미술관을 걸어 들어갈 때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 강렬한 여름 태양이 비스듬하게 떨어지며 콘크리트 벽을 빛과 어둠으로 칼같이 나누던 장면. 끝없이 이어지는 회색 통로, 별안간 나타나는 삼각형, 사각형의 기하학적 중정과 초록의 식물들. 새로운 경험이었다. 또 섬의 건너편 훈무라 마을의 '이에 프로젝트' 역시 눈길을 끌었다. '이에 프로젝트'는 마을의 폐가를 고쳐 집에 작품을 하나씩 들인 갤러리 하우스다. 작품들이 마을 여기저기에 숨어 있기 때문에 보물을 찾듯 지도를 보고 골목을 이리저리 헤집으며 다녔다. 작품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작품을 보여주는 방식, 마을 안에 작품을 두고 그곳을 찾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을을 한 바퀴 둘러보게 하는 방식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마을 전체를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느껴보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데 마을 곳곳에 보물을 숨겨 놓으니 관람객들은 미로 같은 길로 다니면서 흑 길을 지나건 건 아닐까, 두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피게 되고 자연스럽게 마을의 모습이 눈에 더 잘 들어왔다.

나오시마가 예술의 섬으로 유명해지자 주변의 섬들 역시 미술관과 작품들을 하나씩 들이기 시작했다. 이어 나오시마와 주변 12개의 섬은 3년에 한번씩 '세토우치 트리엔날레'라는 국제예술제까지 개최하게 됐다. 지난해 3회 예술제에는 100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명실공히 세계적인 예술 축제가 되



## 대중성 포기하니 대중성 얻어... 예술의 섬 나오시마, 100만 명이 찾는 명소 되다

었다. 나 역시 그동안 많게는 1년에 서너 번씩 나오시마를 찾으며 시골 마을의 풍경과 어우러진 독특한 예술적 분위기를 즐겼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저 신기하게만 보이던 모습의 이면에 놓인 섬의 전략이 눈에 들어왔는데, 이들을 생각해보면 만한 것이 총체적 경험과 거리 유지하기다. 사실 거액의 돈을 들여 고급스러운 예술 작품을 섬에 들인다면, 누구나 한번쯤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그러면 예술 사업에 투자한 투자자는 찾아오는 손님들의 수

를 늘리기 위해 교통편도 수월하게 하고 대규모 숙박 시설과 다양한 편의 시설도 갖추려고 한다. 오래 이어지는 개발사업의 순환구조를 떠올리면 당연한 순서지만, 나오시마의 성공은 이런 편리함을 거부하고 도시와의 심리적 물리적 거리감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단순히 예술 작품을 보기 위해 오는 게 아니라 시골 마을 풍경과 어우러진,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예술적 분위기를 찾아서 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다. 그래서 100만 명

이 찾는 명소가 됐지만, 미술관 내 사진 촬영은 금지해 인터넷에서 이미지가 마구 소비되지도 않을뿐더러 전용 페리도 없고 편의점 한 곳, 작품이 된 조그만 목욕탕, 나오시마 맥주를 파는 가게, 옛 집 마루에서 텐트 치고 자는 잠자리 등만 여전히 섬을 지키고 있다. 물론 여기에 마을 사람들의 인내심 또한 포함해야 될 것 중 하나다. 나오시마를 보면 대중성이란 것은 대중성을 포기하는 순간 얻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의 많은 지방단체가 나오시마의 성공 사례를 재생의 모델로 삼고자 한다. 이들이 화려한 겉모습 이면에 있는 섬의 전략까지 들여다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차현호

건축가



※ 본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그룹웨어 돋보기

### 우리 회사 똑똑한 애플리케이션 비즈폰(BizPhone) 탐구생활

스마트폰을 손 닿는 위치에 늘 두는 사람이라면, 외근과 출장이 잦은 사람이라면 특히 주목하자. 개인의 스마트폰을 사내 전화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시스템, 비즈폰(BizPhone)을 소개한다.

꼭 받아야 하는 업무(회사) 전화가 있는데 외근을 가야 할 때, 출장 중 급히 회사에 연락을 취해야 할 때 당황했던 기억이 한번쯤 있을 것이다. 비즈폰(BizPhone)은 이런 고민을 한번에 해결해준다. 비즈폰 앱(App)만 내려 받으면 본사와 국내의 현장에서 누구나 간편하게 사우의 연락처를 검색하고 착·발신할 수 있다. 비즈폰은 국내 직원 간의 통화가 무료이며, 해외에서 국내로 전화를 걸 때는 국내 요금에 적용(본사 발신 시엔 무료) 된다.

#### 1. 앱 다운로드

스마트폰 인터넷 브라우저 주소창에 http://gais2.hdec.co.kr/fmc를 입력하면 ID와 패스워드(PW)를 입력하는 페이지가 뜬다. ID에는 사번을, PW에는 그룹웨어 비밀번호를 각각 쓰면 된다. 잠

시 기다리면 안드로이드 앱 다운로드 iOS 앱 다운을 선택할 수 있는 페이지가 뜨는데,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 운영체제에 맞는 앱을 내려 받으면 끝이다.

#### 2. 유선전화-비즈폰 연동

본사에서 근무한다면 본사 유선전화와 비즈폰을 연동할 수 있다. 유선전화 수화기를 들고 #7 → #1 → 내선 번호 네 자리를 차례대로 누르면 연동 완료(해제는 ##7). 유선전화의 벨이 세 번 울릴 때까지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비즈폰으로 자동 연결된다. 유선전화로 걸려오는 모든 전화를 비즈폰으로 받고 싶다면 #9 → #1 → 내선 번호 네 자리를 눌러 설정하면 된다(해제는 ##9).

#### 3. 연락처 검색

가장 자주 사용하게 될 기능이다. [연락



1 앱 다운로드 화면. 그룹웨어 ID와 PW를 입력하면 된다. 3 비즈폰을 이용하면 사우들의 연락처를 쉽게 검색할 수 있다. 4 출근 버튼을 퇴근으로 바꾸면 모든 수신 차단된다.

처] → [사내 연락처] 순서대로 터치하면 검색창이 뜬다. 검색창 왼쪽 옆의 내림단추를 눌러 ▶성명 ▶부서명 ▶내선 번호 ▶담당 업무 등을 선택한 후 원하는 정보를 입력하면 사우의 연락처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4. 상태 설정

키패드 화면 왼쪽에 표시되는 상태 설

정 버튼을 누르면 ▶설정 없음 ▶회의 중 ▶외근 중 등 나의 상태를 설정할 수 있다. 출/퇴근 설정 또한 할 수 있다. 키패드 화면 오른쪽에 있는 [출근] 버튼을 클릭하면 [퇴근]으로 바뀐다. 반차 혹은 연차를 냈을 때 사용하면 좋은 기능으로, 퇴근으로 설정을 바꾸면 유선전화와 비즈폰을 연동해 두었다더라도 모든 수신 차단된다.

#### Q&A

#### 비즈폰이 궁금해요~

Q 앱을 통해 사생활을 침해 받을까봐 걱정돼요. 걱정 마세요. 비즈폰에는 위치 추적 등의 기능이 없어요. 회사(비즈폰)는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를 저장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Q 데이터 소모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네트워크를 사용할 경우 400분 통화 시 100MB 수준의, 적은 양의 데이터가 소모됩니다.

Q 비용절감 효과가 큰가요. 2016년 5월 비즈폰 도입 이후 2015년 대비 통신비가 8000만원가량 절감됐습니다. 올해에는 1억9000만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의=총무실 이규현 과장(2343)  
통신실 주영석 사원(2917)

카테일, 미스터리, 사진집, 물품 보관. 이 네 개의 단어는 놀랍게도 책과 관련이 있다. 주인공의 취향이 드러나는 서가에서 책을 읽으며 다양성이 접목된 독특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이색 서점 네 곳을 엄선했다. 글=이은아/사진=각서점 제공

HYUNDAI E&C TODAY  
http://news.hdec.kr  
Vol.341  
2017/09/13/Wednesday

# 동네 서점의 유쾌한 진화



## 짐을 맡아주는 여행 서점 짐프리

서점일까, 여행센터일까, 아니면 보관소일까. 지하철 홍대입구역 지하상가에 위치한 짐프리(zim-free)의 문을 열면 고개가 가우뚱거려진다. 열 평 남짓한 공간에 1800여 종의 출판물이 빼곡히 놓여 있으니 책을 파는 곳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벽에 붙은 '물품 보관'이나 '인터넷, 팩스, 프린트 이용'이나 '나만의 책 만들기 워크숍' 같은 생소한 문구는 이곳의 정체성을 아리송하게 만든다. 짐프리를 운영하는 이진곤 대표는 '여행과 책 사이'라는 말로 짐프리를 설명한다. 여행자에게 편의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간이여행센터이며, 여행 서적을 비롯한 다양한 독립출판물을 구비한 독립출판서점이라는 의미에서다. 여행과 책의 합집합 같은 공간이

라는 뜻이다. 짐프리는 여행객의 짐뿐 아니라 책을 만드는 창작자의 짐도 덜어준다. 독립출판을 원하는 이들을 위한 '나만의 책 만들기' 수업을 3개월에 한 번꼴로 진행한다. 기획, 디자인, 유통 전 과정을 다루며 주 1회, 9번 참석으로 책 한 권을 똑딱 만들 수 있다. 곧 17기를 모집한다니 지난 휴가의 여운을 책으로 엮고 싶다면 짐프리 블로그를 방문해 보자. 물론 다음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에게도 짐프리는 방문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서점이다.

주소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156 LG펠리스빌딩 B2 222호  
시간 오전 9시~오후 10시(금·토는 오후 11시까지)  
문의 02-322-1816, blog.naver.com/zimfree



책방 주인들의 추천 도서

by 짐프리 이진곤



심심하세요

제일 못하는 일이 집에서 쉬는 거라는 저자가 평소에 즐기는 활동을 소개한다. 재치 있는 경험담 속에서 소중한 여유 시간을 채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김도연 / 독립출판물

책사랑꾼 이색 서점에서 무얼 보았나?

한국과 일본의 동네 서점 탐방기. 각 서점의 속살은 물론 주변 관광지, 서점에서 산책에 관한 감상까지 당장 이 책만 들고 서점 투어를 떠나도 손색이 없다. 김건숙 / 바이북스

## 음주 독서 권하는 책방 책바

연희동 골목길에 어둠이 내릴 즈음, 술 한 잔에 책 한 권을 곁들이려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전체적으로 어두운 실내에 독서 조명등이 켜진 이곳은 조용하게 혼술하며 탐독하기에 그만이다. 좌석은 바와 테이블 두 종류인데, 안쪽에 비밀의 문이 하나 있다. 버튼을 누르면 책장이 열리고 1인 테이블이 놓인 내부에 들어갈 수 있다. 책바를 찾는 묘미는 무엇보다 책에 등장하는 술을 마실 수 있다는 데 있다. 『인간 실격』과 『압생트』, 『노르웨이의 숲』과 『보드카 토닉』 등 술과 책이 함께 놓인 책장과 『기나긴 이별』의 『김렛』, 『무기여 잘 있거라』의 『그라파』 등을 소개한 메뉴판을 참고하면 책 속 한 장면을 재현할 수 있다. 책바에는 빌보드차트라

는 독특한 문화가 있다. 손님이 쓴 짧은 글을 게시하는데, 표를 많이 얻은 주인공은 무료 카테일과 주인공이 엮는 책에 실리는 영광을 얻는다. 책바는 책을 판매하는 야간서점이기도 하다. 소설, 에세이, 시 등 술과 어울리는 일반 도서, 정기간행물, 독립출판물 등 주인장이 간간하게 골라 놓은 책들을 판매한다.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 책 가격의 10%를 할인해준다. 애서가이자 애주가라면 술과 책, 글이 어우러진 이곳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맛로24, 101호  
시간 오후 7시~오전 1시30분(금·토는 오전 3시까지)  
문의 02-6449-5858, chaegbar.com



by 책바 정인성



소셜 마시는 시간

책바 주인장이 쓴 책으로 다양한 소설 속에 등장한 술에 관한 이야기. 책과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으며, 모든 술은 책바에서 판매한다. 정인성 / 나무,나무

맥주 탐구 생활

나만의 맥주를 찾는 사람을 위한 가이드북. 일러스트레이터이기도 한 작가의 그림은 보는 재미를 더하고 맛깔스러운 설명은 맥주를 마시고 싶은 마음을 샘솟게 한다. 김호 / 21세기북스



## 엄선한 사진집만 팝니다 이라선

여행길에 취향에 맞는 책을 사는 게 취미인 김현국·김진영 부부가 운영하는 사진집 전문 서점이다. 우연히 들른 서점에서 발견한 희귀본을 다른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은 갈망, 그리고 사진집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공간이 국내에는 흔치 않다는 아쉬움이 서점을 여는 계기가 됐다. 이라선에는 오래된 초판본은 물론 절판된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희귀 서적, 최근 출간된 양질의 신간까지 사진집 400여 권이 구비돼 있다. 한 권 한 권 이야기거리가 풍부하고 소장 가치가 있는 만큼 이라선의 사진집은 예술품처럼 전시된다. 사진가와 편집자, 출판사가 고심해 선정한 판형과 표지, 그리고 사진의 아름다움에 집중할 수 있게 서점 내부를 아늑

한 개인 서재처럼 꾸몄다. 보통 고가의 사진집은 비닐에 싸여 있어 구입하려면 약간의 모험을 감수해야 하는데 이라선은 래핑을 벗기고 비닐 커버를 씌웠다. 독자들이 사진집을 열어보고 직접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다. 또한 이라선은 사진집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북토크를 진행한다. 서너 달에 한 번씩 사진 역사에서 중요한 사진집을 선정해 사진학과 교수나 사진 비평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공지가 올라온다.

주소 서울시 중로구 효자로7길5  
시간 낮 12시~오후 8시(월 휴무)  
문의 010-5420-0908, 010-8660-3567, www.irasun.co.kr

by 이라선 김진영



Grand Paris

사람들이 북적이는 파리의 모습을 때로는 위트 있게 때로는 적나라하게 포착한다. 영국 사진가 마틴 파가 담은 파리는 낭만과는 거리가 멀다. Martin Parr / Editions Xavier Barral

Roxane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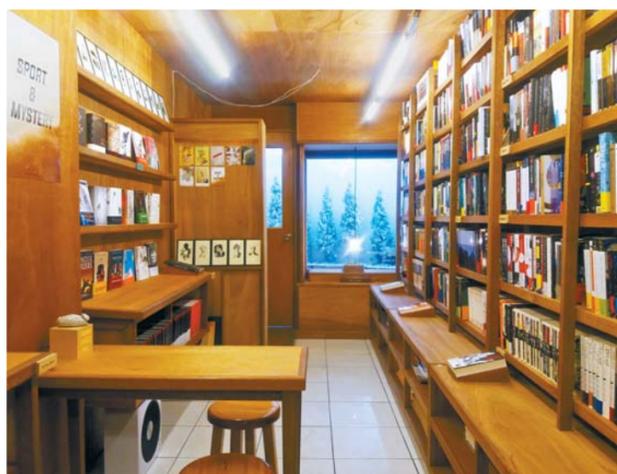
네덜란드 사진가 비비안 사센이 동료 록산의 신체를 강한 콘트라스트와 색감 대비로 표현한다. 2017년 신간으로, 사진과 그림의 병치를 보여준다. Viviane Sassen / oodee

## 추리소설에 빠지는 시간 미스터리 유니온

입구에는 책 한 권이 놓여 있고 그 위로 백열전구가 따뜻한 빛을 비춘다. 아날로그 분위기가 느껴지는 한편 뭔가 흥미로운 이야기가 내부에 숨어 있을 것만 같다. 호기심에 들여다본 유리창 너머에는 단정하게 뺨은 나무 서가가 보인다. 하드보일드 탐정물, 오컬트 미스터리, 추리소설 이론서까지 뽐내듯 꽂힌 서가 풍경은 마치 고요한 별천지 같다. 추리소설 전문 서점 미스터리 유니온은 1700여 권의 책을 좌우 두 개의 서가에 보관한다. 왼쪽은 국가와 작가별로 정리된 서가다. 잘 알려진 서양 추리소설은 물론 꽤 많은 동양의 추리소설이 구비돼 있다. 오른쪽 서가는 테마 서가다. 매달 일정한 주제에 맞춰 책의 표지가 보이게끔

비치한다. 지금까지 '동물' '메디컬' '아트' '맛' '일제강점기' '여행' 등의 테마를 다뤘는데 9월은 '오마주'로, 애거사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레이먼드 찬들러의 『빅슬립』 등 후대 작가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된 추리소설들을 선정했다. 보름달이 뜬 밤에 단편 추리소설을 낭독하는 '달밤 낭독 클럽'과 추리소설 작가와 오묘한 시간을 마련하는 '미스터리 토크' 도 자주 열린다.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88-11  
시간 오후 1~9시(수~금), 낮 12시~오후 8시(주말)  
문의 02-6080-7040, www.instagram.com/mysteryunionbook



by 미스터리 유니온 유수영



별을 사지는 바람

시인 윤희주의 마지막 1년을 모티브로 한 픽션 추리소설. 작품에 수록된 시들을 다시 시집으로 읽고 싶게 만든다. 올해 이탈리아 반카렐라 문학상을 수상했다. 이정명 / 은행나무

기발한발상, 하늘을 움직이다

제목 그대로 기발한 발상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결말을 예측하기 어려운 전개와 가슴을 울리는 묵직한 메시지는 작가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은 정도다. 시마다 소지 / 시공사



하노이의 아침

주소 서울시 중로구 계동길 41, 2층  
영업시간 오전 11시~오후 9시30분  
(브레이크타임 오후 3시~4시30분, 일요일 휴무)  
문의 02-766-5320

현대건설 임직원을 위한 special event

현대건설 사원증을 제시하면  
메뉴 2개당 스프링클(3pcs) 1개 서비스  
2017년 9월 13일~11월 30일  
16시 30분 이후 주문 시

내공이 느껴지는 베트남음식 전문점  
하노이의 아침

관광객과 직장인으로 붐비는 계동 인근은 요식업자들에게 치열한 전쟁터다. 감각적인 인테리어와 서비스, 맛을 무기로 매일 경쟁하고 차별화에 실패한 가게는 곧 사라지고 만다.  
계동에 새롭게 문을 연 '하노이의 아침'은 안국역 3번 출구에서 중앙고등학교로 가는 길, 첫 번째 사거리에 위치해 있다. 쌀국수 맛집으로 소문이 난 체인

점 '하노이의 아침' 계동점으로, 이를 아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하노이의 아침 계동점에 들어서면 빈티지 가구, 현대적인 디자인의 조명, 크고 작은 화초 등이 어우러진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온다. 지나치게 감각적이지 않은 편안한 분위기다. 이곳에는 전채·샐러드, 접시요리, 쌀국수, 볶음요리·안주 등 30가지의 메뉴가 준비돼 있다. 계

동점의 한 직원은 "향신료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사람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메뉴가 다양하다"고 귀띔했다.  
직원의 조언에 따라 짜조, 팟타이, 레드커리, 차돌양지 쌀국수를 주문했다. 라이스페이퍼에 돼지고기·목이버섯·양배추로 속을 채워 튀겨낸 짜조는 느끼하지 않고 고소했다. 이곳의 대표 메

1 하노이의 아침 내부 전경. 2 짜조와 샐러드가 어우러진 메뉴다. 가격은 1만 5500원. 3, 4 팟타이(왼쪽)와 레드커리. 각각 1만 6000원, 1만 6500원.

뉴로 손꼽히는 팟타이는 짭짤과 단맛이 조화로웠으며, 16가지 향신료와 차돌양지로 우려낸 육수가 일품인 차돌양지 쌀국수는 구수하면서도 담백했다. 칠리 페이스트와 코코넛 밀크, 레몬그라스로 풍미를 살린 레드커리는 동남아 음식 특유의 상큼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났다.  
본사 인근에는 다섯곳 이상의 동남

아음식점이 있다. 가장 최근 문을 연 하노이의 아침 계동점은 다른 음식점들 못지않게 문전성시를 이룬다. 직접 가서 맛본 결과 초반의 이 강세를 쫓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계동점에서는 11월 말까지 현대건설 사우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니, 꼭 한번 가보기를 추천한다.  
글=박현희 / 사진=이슬기

문화책갈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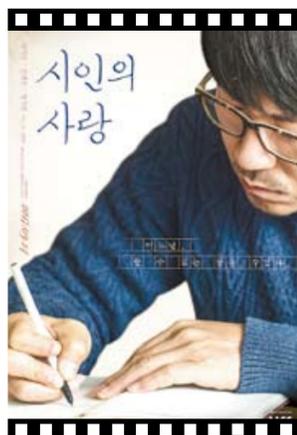
편리한 서비스가 갖춰진 멀티플렉스도 좋지만, 대형 영화관에서는 느낄 수 없는 향수와 독특한 영화편성이 있는 작은 예술 영화관도 매력적이다. 작은 영화관에서 보는 예술 영화 한 편은 블록버스터·상업영화와는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단 작은 영화관은 상영작이 자주 바뀌니 보고 싶은 영화가 있다면 미리지 말고 바로 가보는 것이 좋다.

올가을, 작은 영화관에서 영화한편 어떠세요?



**몬스터 콜**  
감독 후안 안토니오 바요나  
출연 시고니 워버, 펠리시티 존스  
개봉 9월 14일  
영화관 필름포럼(filmforum.kr)

엄마의 죽음을 앞두고 빛을 잃어가던 소년 코너가 자신을 찾아온 상상 속 존재 몬스터를 만난 후 외면하던 상처들과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를 섬세하게 그려낸 판타지 영화다. 이동진 편론가는 "힐링 시네마란 바로 이것"이라며 호평하기도 했다. 올가을과 더할나위 없이 잘 어울리는 영화일 듯.



**시인의 사랑**  
감독 김양희  
출연 양익준, 전혜진, 정가람  
개봉 9월 14일  
영화관 에무스네마(emuartspace.com)

영화는 한 달에 30만원을 채 못 벌지만 시를 사랑하는 남자, 그의 아이를 갖길 원하는 아내, 남자가 미묘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한 소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시인과 소년의 관계는 동성애로 비춰질 수 있으나, 인간애나 동정심으로 승화시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를 판단하는 건 관객의 몫이다.



**고양이 케디**  
감독 제다 토론  
출연 7마리 고양이  
개봉 9월 21일  
영화관 아트하우스 모모  
(arthousemomo.co.kr)

영화는 터키 이스탄불에 사는 각양각색의 일곱마리 고양이와 그들에게 진심 어린 애정을 보내는 시민들의 따뜻한 공존을 담고 있다. 영화의 배경이 된 이스탄불은 13만 마리 이상의 고양이와 어우러져 살고 있는, 고양이를 가장 사랑하는 도시로도 알려져 있다.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필히 관람하자.



**뎌보걸즈**  
감독 이승문  
출연 이규호, 김현빈, 배은정  
개봉 9월 27일  
영화관 아리랑시네센터  
(cine.arirang.go.kr)

거제여상 열여덟 소녀들의 뎌스스포츠 대회 도전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다. 거제도의 불황 앞에서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기 전, 뎌스스포츠 대회를 앞둔 '뎌보반' 아이들, 서로의 상처와 고민, 취업에 대한 불안함을 감싸 안으며 성장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는 어느 영화보다 큰 감동을 안겨준다.

SPA 시험 이렇게 준비하자

Picture Description 유형  
Please describe the picture below.



This indoor photo looks like to be taken in a college or a company. There are 9 people in the picture. They seem to have a meeting or a seminar or a class. The woman in the center seems to be the leader or the teacher. She is wearing a white shirt and a black skirt. She tied her hair back. The woman in her left has brown perm hair.

Opinion Question 유형  
Beauty contests were prevailing in the past but many countries have abolished because the sex of the woman was commercialized. However some insist beauty contests, in and of themselves, are pretty harmless. Beauty contests should be encouraged or not?

It's not all appearance If you're talking about the Miss. USA pageant system then, I guess you'd be right. On the other hand the Miss. America system offers amazing scholarships, and it's not based on how you look, rather if you're comfortable in your own skin, your interviewing skills, knowledge and ability to communicate. They've helped me develop opinions on things and become more graceful, if you will.

자료 제공 SLI 교육원(02-541-7219)

멀리 떠나지 않아도 좋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반기는 초록의 향연. 힐스테이트 산책로로 초대한다.  
 자료제공=<HillstatePromise> 매거진 / 사진=박상국, 이병주, 윤성근

HYUNDAI E&C TODAY  
 http://news.hdec.kr  
 Vol.341  
 2017/09/13/Wednesday

# 걷기 좋은 힐스테이트 가을 산책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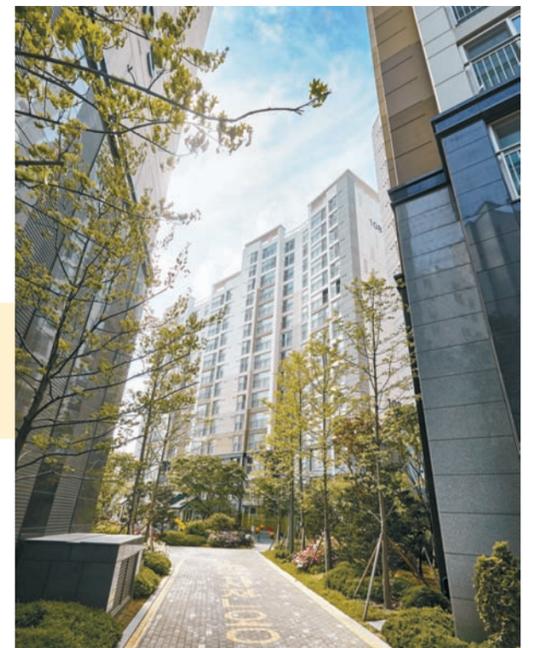
### 힐스테이트 송파 위례

힐스테이트 송파 위례는 큰길을 제외하고 아파트 단지 둘레로 차가 다니지 않아 천천히 가게와 사람들을 구경하며 아이들과 산책하기 좋다. 갤러리 워크웨이를 따라 이국적인 에메랄드 그린 나무가 즐비하여 서 있고, 감과 산수유가 빨갛게 익어가며 톱풀·홍피·역새갈이 정다운 야생초가 가득해 화초를 보는 눈이 즐겁다. 단지 한가운데 마련된 숲속 도서관에는 책이 잔뜩 꽂혀 있어 산책하다가 심심하면 아이들과 하나씩 꺼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기에도 좋다.



### 힐스테이트 송담

힐스테이트 송담은 가로수길을 따라 조성된 자갈이 깔린 수로와 대나무 숲이 어우러진 푸르른 산책길이 돋보인다. 특히 103동, 104동에는 아파트 인근의 밤나무 숲으로 갈 수 있는 산책로가 마련돼 있다. 아파트 내부로 자동차가 다닐 수 없는 구조여서 아이들이 뛰어놀기에도 더없이 좋을 듯하다. 특히 몬드리안의 추상화를 연상시키는 무지갯빛 휴게 시설은 햇빛의 방향에 따라 아름다운 빛을 선사한다.



### 마곡 힐스테이트

8개 동으로 이뤄진 마곡 힐스테이트는 '제20회 서울특별시 환경상' 시상식에서 조경생태 분야 우수상을 받았을 만큼 훌륭한 조경이 돋보인다. 멋진 조형물과 잔디가 어우러진 중앙 광장, 그리고 놀이공원에 온 듯한 친환경적이면서도 창의적인 테마 놀이터가 눈에 띈다. 특히 동과 동 사이를 연결하는 산책로에는 푸른 나무와 다양한 종류의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다.

